

2018년 ESG 등급 부여 및 공표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조명현)은 국내 상장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여 2018년도 ESG 등급을 부여하고 공표함
- ESG 등급은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 성과 및 위험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각 ESG 등급 및 ESG 통합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
- 올해는 상반기에 기업지배구조(G)를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2018.7.10.)하였고, 총 881사를 대상으로 2017 사업연도의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배구조등급위원회에서 환경·사회 등급과 통합등급을 부여(2018.10.10.)함

II. 2018년 ESG 평가 주요 특징

평가시기 조정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공시정보 반영 확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8년부터 상반기에 기업지배구조(일반 상장사/금융사 별도 평가)를 먼저 평가하고, 하반기에 환경·사회를 평가하여 통합 등급을 부여(2018.10.10.)함
- 지배구조 평가는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발간되는 상반기(4월-6월)로 평가시기 유지
- 환경·사회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되는 하반기(7월-9월)로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비재무정보 공시를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평가모형 세분화를 통해 기업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

-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배구조 평가모형을 제정하여 별도 평가
 - 상장 금융회사는 ESG 평가 시 지배구조 분야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항에 의하여 평가(2018. 7. 23. 보도자료 참조)
- 지주회사의 환경·사회 평가모형을 자회사 평가결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자회사의 ESG 위험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자회사의 비재무정보를 모회사의 평가에 일부 반영함
- 환경 및 사회 영역에서의 기업 특성(환경 민감도, B2B/B2C 여부)에 따른 차등 평가 실시
 -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 민감도 및 사업의 특성(B2C 사업, B2B 사업, B2B IT사업 또는 재보험업)을 고려하여 평가 문항을 달리 적용함

III. 2018년 ESG 등급 부여 결과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결과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행은 2017년 수준과 유사하나, 여전히 상당수 기업(79%)가 보통 이하의 수준('B' 이하 등급)으로 나타나, ESG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교
	2018	2017	
S	0사	0사	
A+	11사 (1.5%)	5사 (0.7%)	▲ 0.7%p
A	41사 (5.6%)	38사 (5.2%)	▲ 0.4%p
B+	101사 (13.9%)	116사 (15.8%)	▽ 1.9%p
B	261사 (35.9%)	290사 (39.6%)	▽ 3.7%p
C	278사 (38.2%)	261사 (35.6%)	▲ 2.5%p
D	35사 (4.8%)	23사 (3.1%)	▲ 1.7%p
계	727	733사	

- * 기업별 등급정보는 KCG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 평가대상 상장회사 881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27사만을 제시함
- *** 금년도에는 'B+' 등급 이상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추후 등급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 중상위권 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 및 책임경영 시스템 강화 등 자발적인 ESG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하위권 기업은 ESG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영역별 등급 부여 결과

- 사회책임경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기업의 자발적인 ESG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ESG 경영 수준은 전년과 유사함
 - (환경) 환경정보를 공개한 기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이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아 전년도와 평가결과가 유사하며, 상위권 기업이 일부 증가함
 - (사회) 감점 적용이 일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사회책임경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증가함
 -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감점요인 확대 등으로 2017년도와 유사한 등급 분포를 보임(2018. 7. 23. 보도자료 참조)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등급 \ 구분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S	-	-	-	-	-	1
A+	7	4	38	26	9	3
A	55	58	50	50	27	53
B+	142	144	137	104	144	153
B	216	219	241	261	295	348
C	110	78	250	274	226	155
D	197	230	11	18	26	20
계	727	733	727	733	727	733

* 기업별 등급정보는 KCGS 홈페이지(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에서 확인 가능함
 ** 상장회사 881사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27사만을 제시함
 *** 금년도에는 'B+' 등급 이상 기업 명단만 공개하고, 추후 공개 등급을 확대할 계획임

붙임.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첨부. 2018년 ESG 등급 부여 내역

※ 담당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분석1팀

김진성 팀장
 (E)오윤진 파트장
 (S)장윤제 연구원
 (G)정유진 파트장

(02-6951-3701, jskim@cgs.or.kr)
 (02-6951-3704, shining5@cgs.or.kr)
 (02-6951-3702, jyj@cgs.or.kr)
 (02-6951-3706, yjjung@cgs.or.kr)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2018.11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목차>

I. ESG 평가 및 등급 개요	1
1. ESG 평가 개요	1
2. ESG 등급	2
II. ESG 등급 현황	4
1. 2018년 ESG 등급 현황	4
2. 전년도 대비 ESG 등급 변화	4
3. 영역별 등급 변화 요인	6

I. ESG 평가 및 등급 개요

1. ESG 평가 개요

- (평가대상) ESG 평가대상 회사를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함 (총 881사)

<표 1> ESG 평가대상 기준

대상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코스닥 100 구성종목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 R 펀드 지문서비스 제공 기관 요청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 상장회사 - 특수목적법인 등 페이퍼컴퍼니 -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 (평가절차) 기업 관련 공시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 실시 후, 기업 피드백 및 이사회 인터뷰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함

	G	E·S	
① 평가 준비	3월	6월	평가대상 기업 확정 및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
② 정량평가	~ 5월	~ 8월	기업 공시자료, 각종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검증 실시
③ 기업 피드백	~ 6월	~ 9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 담당자와 양방향 피드백 실시
④ 정성평가*	~ 7월 초		지배구조 평가결과가 우수한 일부 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지배구조)이사회 실제 운영 관행 등 질적인 요소를 평가하고 등급에 고려 (2017년 최초 도입)
⑤ 등급 부여	7.10	10.10	평가결과와 함께 상반기 등급조정 이슈를 검토한 후 최종 등급 부여

2. ESG 등급

- ESG 등급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상장회사의 ESG와 관련한 발생 가능 위험 수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SG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분류함 (<표 2> 참조)

<표 2> ESG 등급 명칭 및 의미

등급	의미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기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 평가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등급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함
 - 평가대상기간(2017 사업연도)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하고 등급을 조정하여 부여함

□ ESG 평가결과는 KRX 사회책임투자지수(SRI) 종목구성에 활용됨

<표 3> KRX 사회책임투자지수

구분	내용
KRX ESG Leaders 150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을 모두 반영한 ESG 통합점수가 높은 상위 150종목으로 구성
KRX Governance Leaders 100	지배구조(G)점수가 높거나 지배구조점수가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종목으로 구성
KRX Eco Leaders 100	환경(E)점수가 높거나 환경점수가 과거보다 많이 상승한 100종목으로 구성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	ESG중 사회책임(Social)분야의 점수가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II. ESG 등급 현황

1. 2018년 ESG 등급 현황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 등급은 2017년 등급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 ESG 수준이 우수한 기업들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평가대상기업의 79%가 취약한 ESG 수준(‘B’ 이하 등급)을 보여 상장회사 전반적으로 ESG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표 4> 2018년 ESG 등급 부여 현황

등급 \ 구분	비고			
	ESG 통합	환경	사회	지배구조
S	-	-	-	-
A+	11	7	38	9
A	41	55	50	27
B+	101	142	137	144
B	261	216	241	295
C	278	110	250	226
D	35	197	11	26
계	727	727	727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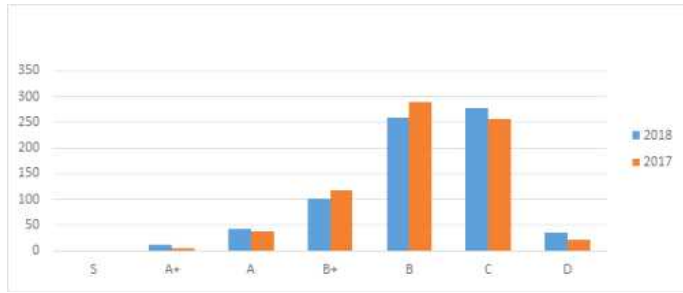
2. 전년도 대비 ESG등급 변화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ESG 등급은 2017년 등급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5> 전년 대비 2018년 ESG 통합등급 부여 현황

등급	기업 수		비고
	2018	2017	
S	0사	0사	
A+	11사 (1.5%)	5사 (0.7%)	▲ 0.7%p
A	41사 (5.6%)	38사 (5.2%)	▲ 0.4%p
B+	101사 (13.9%)	116사 (15.8%)	▽ 1.9%p
B	261사 (35.9%)	290사 (39.6%)	▽ 3.7%p
C	278사 (38.2%)	261사 (35.6%)	▲ 2.5%p
D	35사 (4.8%)	23사 (3.1%)	▲ 1.7%p
계	727	733사	

<그림 1> 2018년 ESG 등급 분포



□ 전년 대비 등급 상승 및 하락

- ‘A+’ 등급과 ‘A’ 등급 기업은 전년 대비 각각 6사, 3사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사회 운영 관행이 개선되었고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소통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에 비해, ‘C’ 등급과 ‘D’ 등급은 전년 대비 각각 17사, 12사 증가하여 개선이 요구됨
- 유가증권시장 내, 전년 대비 등급이 변경된(상승 또는 하락) 기업은 모두 232사(37.7%)이며, 이중 등급 하락 기업(132사)이 상승 기업(100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2017-2018년 ESG 등급 변동 현황

변동 내용	기업 수	비율
등급 상승	100	16.2%
등급 유지	382	62.2%
등급 하락	132	21.5%
계	614*	100.0%

* 2017-2018 연속 평가대상 기업

3. 영역별 등급 변화 요인

□ 환경

- (전년도 유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증가하였으나, ‘정보의 질적 수준 향상’ 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한 환경정보 공개 기업 326사(37.0%)로 전년대비 44사 증가함

□ 사회

- (등급 상승) 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기업 관행이 개선됨
- (등급 상승) 지주회사 평가체계 개선 → 자회사의 비재무정보를 반영함

□ 지배구조

- (등급 상승) 1)기업지배구조 자율공시제도(CoE) 도입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공시 개선, 2)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강화, 3)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및 감사기구 운영 개선 등 전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등급 하락) 감점 적용 기업(402사, 58.7%) 전년 대비 52사 증가함

<등급부여 내역>

1. ESG 통합 등급

등급	기업명				
S (-)	-				
A+ (11사)	KB금융 두산인프라코어 하나금융지주	SK 삼성물산	SK텔레콤 신한지주	S-Oil 케이티엔지	두산 풀무원
A (41사)	CJ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롯데손해보험 롯데하이마트 삼성화재해상보험 포스코 한화 호텔신라	CJ제일제당 LG하우시스 SK하이닉스 롯데쇼핑 삼성SDI 쌍용양회공업 포스코대우 해성디에스	HSD엔진 LG디스플레이 LG화학 OCI 대우건설 롯데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OCI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지역난방공사 케이티 한국항공우주 현대엘리베이터	LG생활건강 SK네트웍스 두산중공업 롯데푸드 삼성전자 케이티 한솔제지 현대해상
B+ (101사)	BNK금융지주 DB하이텍 JW생명과학 LG전자 SKC 경동나비엔 대덕전자 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사 신세계 오투기 이마트 코오롱인더 풍산홀딩스 한라홀딩스 한솔홈데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리바트 현대위아 휴비스	CJ CGV DGB금융지주 GS건설 LG LS산전 SK가스 금호타이어 대림산업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천리 신세계건설 우리은행 인터지스 코웨이 한국가스공사 한미약품 한온시스템 한화케미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GS건설 LG LS산전 SPC삼립 기업은행 대원강업 메리츠증권 삼성에스디에스 삼화페인트공업 신세계인터내셔널 유수홀딩스 제주은행 팬오션 한국제지 한솔케미칼 한진KPS 현대그린푸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CJ헬로 HDC LG상사 NAVER 가온전선 녹십자 도화엔지니어링 메리츠화재 삼성중공업 샘표식품 쌍용자동차 유한양행 코리안리 포스코강관 한국타이어 한솔테크닉스 한전기술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현대홈쇼핑	DB손해보험 JB금융지주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강원랜드 대덕GDS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삼성증권 서연이화 아모레퍼시픽 이구산업 코스모신소재 풍산 한독 한솔홀딩스 한화생명 현대로템 현대에이치씨엔 화승알앤에이

※ 등급조정된 회사는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함

※ 통합등급 및 환경, 사회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하나, 금년도에는 유가증권상장시장의 'B+'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며, 추후 공개등급 확대 예정

2. 환경(E) 등급

등급	기업명				
S (-)	-				
A+ (7사)	KB금융 신한지주	두산 코웨이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물산	삼성화재해상보험
A (55사)	CJ대한통운 HSD엔진 LG전자 SK 기아자동차 롯데정밀화학 삼성전자 아세아시멘트 풀무원 한전기술 현대모비스	CJ제일제당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SK텔레콤 대우건설 삼성SDI 삼성중공업 쌍용양회공업 케이티 지역난방공사 한화 현대엘리베이터	HSD엔진 LG디스플레이 LG화학 OCI 대우건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정밀화학 삼성SDI 삼성중공업 쌍용양회공업 케이티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 현대엘리베이터	DB손해보험 DGB금융지주 LG유플러스 LG이노텍 OCI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해성디에스 현대중공업	GS건설 LG이노텍 OCI 금호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제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포스코대우 한솔제지 현대건설 현대해상
B+ (142사)	AJ렌터카 LG SKC 가온전선 그린케미칼 빅센타이어 대림산업 대창 대호에이엘 디티알오토모티브 무림P&P 빙그레 삼영화학공업 샘표식품 세아제강 신풍제지 웅진에너지 이수화학 조일알미늄 코스모신소재 평화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한국콜마 한미약품 한일현대시멘트 한화생명	CJ CGV DGB금융지주 GS건설 LG LS산전 SK가스 금호타이어 대림산업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삼천리 신세계건설 우리은행 인터지스 코웨이 한국가스공사 한미약품 한온시스템 한화케미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CJ대한통운 GS건설 LG LS산전 SPC삼립 기업은행 대원강업 메리츠증권 삼성에스디에스 삼화페인트공업 신세계인터내셔널 유수홀딩스 제주은행 팬오션 한국제지 한솔케미칼 한진KPS 현대그린푸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CJ헬로 HDC LG상사 NAVER 가온전선 녹십자 도화엔지니어링 메리츠화재 삼성중공업 샘표식품 쌍용자동차 유한양행 코리안리 포스코강관 한국타이어 한솔테크닉스 한전기술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현대홈쇼핑	DB손해보험 JB금융지주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강원랜드 대덕GDS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삼성증권 서연이화 아모레퍼시픽 이구산업 코스모신소재 풍산 한독 한솔홀딩스 한화생명 현대로템 현대에이치씨엔 화승알앤에이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상선	현대위아	현대제철	호텔신라
화승알앤에이	화승인터스트리	화인베스틸	효성	후성
휴비스	휴켄스			

※ 등급조정된 회사는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함

※ 통합등급 및 환경, 사회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하나, 금년도에는 유가증권시장시장의 'B+'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며, 추후 공개등급 확대 예정

3. 사회(S) 등급

등급	기업명				
S (-)	-				
A+ (38사)	CJ LG하우시스 SK이노베이션 두산건설 롯데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항공우주	CJ제일제당 LG화학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케이티앤지 해성디에스	LG디스플레이 OCI S-Oil 두산중공업 롯데푸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코웨이 현대해상	LG생활건강 SK 대우건설 롯데손해보험 롯데하이마트 신세계 포스코대우	LG이노텍 SK네트웍스 두산 롯데쇼핑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
A (50사)	DB손해보험 LG상사 SK가스 롯데칠성음료 삼성에스디에스 쌍용양회공업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현대글로비스	HSD엔진 LG전자 SK텔레콤 부산도시가스 삼성전자 오뚜기 포스코강관 한국타이어 월드 와이드 한진기술 현대모비스	JB금융지주 LS산전 경동나비엔 빙그레 삼성증권 이수페타시스 풀무원 한미약품 한라홀딩스 한화 현대엘리베이터	KB금융 NH투자증권 기아자동차 삼성SDI 신세계I&C 지역난방공사 하나금융지주 한미약품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LG SKC 동아에스티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케이티 한국가스공사 한솔제지 현대건설 호텔신라
B+ (137사)	BNK금융지주 DB하이텍 GS리테일 KSS해운 NAVER 계룡건설산업 광주은행 녹십자홀딩스 대림씨엔에스 대원제약 동원시스템즈 미래에셋대우 삼진제약 세아베스틸 아세아시멘트 우리은행 이마트 자화전자 지투알 코오롱인더	CJ CGV DGB금융지주 HDC KTcs SBS미디어홀딩스 고려개발 금호석유화학 농심 대상 동성코퍼레이션 동화약품 미래에셋생명 삼천리 신세계건설 에넥스 유나이티드 이수화학 제주은행 케이씨 크라운해태홀딩스	CJ대한통운 E1 JW생명과학 LG유플러스 SPC삼립 고려아연 금호타이어 다우기술 대신증권 동성화학 만도 삼성생명 삼화페인트공업 신세계인터내셔널 에스엘 유수홀딩스 인터지스 조선내화 케이씨씨 태평양물산	CJ씨푸드 GKL JW중외제약 LIG넥스원 LS 강원랜드 가온전선 광동제약 기업은행 대덕GDS 대웅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메리츠증권증권 삼양사 샘표식품 신세계푸드 엔에스쇼핑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케이씨티시 풍산	CJ헬로 GS건설 JW홀딩스 LS 강원랜드 광동제약 녹십자 대덕전자 대원강업 동양생명 명문제약 삼양홀딩스 서연이화 쌍용자동차 에스코홀딩스 이노션 일동홀딩스 종근당홀딩스 코리아씨키트 풍산홀딩스

한국금융지주	한국제지	한국콜마	한독	한라
한미글로벌	한미사이언스	한섬	한솔로지스틱스	한솔케미칼
한솔테크닉스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한신공영	한양증권
한온시스템	한일현대시멘트	한진	한화갤러리아타 입월드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해태제과식품	현대로템	현대리바트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상선	현대약품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화승알앤에이	효성
효성 ITX	휴비스			

* 등급조정된 회사는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함

* 통합등급 및 환경, 사회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하나, 금년도에는 유가증권시장시장의 'B+'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며, 추후 공개등급 확대 예정

4. 지배구조(G) 등급

(1) 일반 상장회사 지배구조 등급

등급	기업명				
S (-)	-				
A+ (6사)	SK 폴무원	SK텔레콤	S-Oil	케이티엔지	포스코
A (19사)	CJ 두산밥캣 롯데하이마트 한솔제지	CJ CGV 두산엔진 삼성물산 한화	CJ헬로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홈쇼핑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호텔신라	두산 롯데케미칼 케이티
B+ (126사)	BYC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GS	GS건설
	GS글로벌	GS리테일	JW중외제약	KISCO홀딩스	KTcs
	LG	LG디스플레이	LG상사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화학	LIG넥스원	NAVER
	NHN엔터테인먼트	OCI	SH에너지화학	SKC	SK가스
	SK네트웍스	SK디스커버리	SK하이닉스	SPC삼립	강원랜드
	광주신세계	금호타이어	대교	대구백화점	대림산업
	대성홀딩스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원계약	도화엔지니어링
	동아에스텍	동원금속	두산건설	락앤락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만도
	미원상사	빙그레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자
	삼천리	삼화페인트공업	서연이화	선진	세방
	신도리코	신세계건설	신세계인터내셔널	신흥	쌍용양회공업
	쌍용자동차	씨에스윈드	아모레퍼시픽그룹	아이마켓코리아	엔씨소프트
	엔에스쇼핑	우리금융	유니캡	유니캐스트	유수홀딩스
	이구산업	이노션	이마트	인터지스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제일기획	제주항공	지역난방공사	참엔지니어링	천일고속
	카카오	케이티스	코스모신소재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토니모리	팬오션	포스코강관	포스코대우	풍산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셀석유	한국전력공사	한국항공우주	한독
한라홀딩스	한섬	한세엠케이	한솔케미칼	한솔홀딩스	
한솔홈데코	한온시스템	한진KPS	한진중공업홀딩스	한화케미칼	
해성디에스	현대건설	현대그린푸드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로템	
현대리바트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에이치씨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화성산업	환인계약	
휴비스					

	AJ랜더카	BGF	CJ씨푸드	CS홀딩스	DB
	DB하이텍	E1	GKL	JW생명과학	JW홀딩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KEC	KPX그린케미칼	KPX케미칼
	KPX홀딩스	KSS해운	LF	LG전자	LS네트웍스
	LS산전	LS전선아시아	NICE	S&TC	S&T모티브
	S&T중공업	S&T홀딩스	SBS	SBS미디어홀딩스	SIMPAC
	STX	STX엔진	WISCOM	가온전선	강남제비스코
	경동나비엔	경보계약	계룡건설산업	계양전기	고려개발
	고려산업	광동계약	광전자	국동	국제약품
	극동유화	금호산업	기신경기	까뮤이앤씨	깨끗한나라
	남광토건	넥센	넥센타이어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녹십자	다우인큐브	대경기계기술	대덕GDS	대덕전자
	대림비엔코	대림씨엔에스	대림통상	대상	대상홀딩스
	대양금속	대우부품	대원강업	대창	대창단조
	대한전선	대한제강	대한제당	대한항공	대한화섬
	대현	더존비즈온	동국제강	동부제철	동서
	동성코퍼레이션	동성화학	동아에스티	동아지질	동양
	동양고속	동양네트웍스	동원수산	동일방직	동일제강
	동화약품	두울	디씨엘	디아이	디와이
	디와이파워	디티알오토모티브	디피씨	롯데관광개발	만호제강
	명문계약	모나미	모토닉	무림P&P	무림페이퍼
	무학	문배철강	미래산업	미원홀딩스	미창석유공업
	방림	보락	보해양조	부광약품	부국철강
	부산도시가스	비상교육	사조동아원	사조씨푸드	사조오양
	삼성공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삼성출판사	삼아알미늄
	삼양사	삼양홀딩스	삼영전자공업	삼영화학공업	삼원강재
	삼익THK	삼일계약	삼진계약	삼호	삼화양관
	삼화전기	삼화콘텐츠공업	상신브레이크	세론오토모티브	샘표
	샘표식품	서연	서울도시가스	서울식품공업	서원
	서흥	선도전기	성보화학	성신양회	세기상사
	세아특수강	세원정공	세진중공업	세하	셀트리온
	수산중공업	신세계	신세계I&C	신송홀딩스	신일산업
	신풍계약	신풍제지	씨니전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아이에이치큐	아티스	알보젠코리아	에스제이엘	에스제이엠홀딩스
	엔피씨	영원무역	영진약품	영풍	영화금속
	영흥철강	에스코	오뚜기	용평리조트	우진
	우진플라임	웅진	웅진에너지	윌비스	유나이티드

B (289사)

	유성기업	유양디엔유	유유계약	유한양행	윤촌화학
	이연계약	인디에프	인천도시가스	인백	일동홀딩스
	일성건설	일성신약	일신방직	일양약품	일진디스플
	일진머티리얼즈	일진홀딩스	잇츠한불	제일연마	제일파마홀딩스
	조광피혁	조선선재	조흥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종근당홀딩스	지엠비코리아	지투알	진양산업	진양홀딩스
	카프로	케이씨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코리아오토글라스	코스맥스
	코스맥스비티아이	코스모화학	코아스	코오롱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인터	코오롱플라스틱	코웨이	쿠쿠홀딩스	크라운해태홀딩스
	태원물산	태평양물산	텔코웨어	티비에이치글로벌	티에이치엔
	탐스	파미셀	팜스코	퍼스텍	퍼시스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폴루스바이오팜	풍산	하나투어
	하이스틸	하이트론씨스템즈	하이트진로홀딩스	한국단자공업	한국수출포장공업
	한국제지	한국종합기술	한국철강	한국카본	한국타이어
	한국화장품	한농화성	한라	한미글로벌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한샘	한세실업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테크닉스
	한신공영	한신기계공업	한올바이오파마	한익스프레스	한진기술
	한진	한태테크윈	해태제과식품	헨즈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현대약품	현대자동차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화승알앤에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인베스틸	화천기공	효성 ITX	후성
	윌라코리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휴스틸	휴켄스	
	AJ네트웍스	AK홀딩스	DRB동일	DSR	DSR제강
	F&F	KGP	KR모터스	LS	MH에탄올
	SG세계물산	SG충방	SK디앤디	TCC동양	YG PLUS
	캘텍시아에스엠	경농	경동인베스트	경방	경인양행
	경인전자	고려아연	고려제강	국도화학	국보
	금강공업	금비	금양	금호석유화학	금호에이치티
	금호전기	기아자동차	나노메딕스	남선알미늄	남성
	남양유업	남영비비안	남해화학	녹십자홀딩스	농심
	농심홀딩스	다우기술	대동공업	대동전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대영포장	대웅	대웅계약	대원전선
	대원화성	대유에이텍	대유플러스	대한방직	대한유화
	대한제분	대한해운	대호에이엘	덕성	덕양산업
	동국실업	동남합성	동방	동방아그로	동성계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양물산기업	동원	동원산업	동원시스템즈
	동일고무벨트	동일산업	다이어씨	마니커	메디플라트

C (219사)

	모나리자	미래아이엔지	미원화학	백광산업	백광소재
	백산	범양건영	벽산	보령제약	부산산업
	부산주공	사조대립	사조산업	사조해표	삼광글라스
	삼성제약	삼양통상	삼영무역	삼익약기	삼정필프
	삼호개발	삼화전자공업	선창산업	성문전자	성안
	성장기업지주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세우글로벌	세원셀론텍	세이브존I&C	세종공업	신라교역
	신성이엔지	신성통상	신세계푸드	신원	신화실업
	쌍방울	씨아이테크	아남전자	아비스타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제지	아이에스동서	아이콘트롤스	알루코
	애경유화	에넥스	에스엘	에스원	에쓰에너지니어링
	에이엔피	에이프로젠KIC	엔케이	영보화학	영원무역홀딩스
	영풍제지	오리엔트바이오	와이비로드	우리들제약	우리들휴브레인
	우성사료	우신시스템	웅진생크빅	원림	유니드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유엔젤	이건산업	이수페타시스
	이수화학	이스타코	이아이디	이월드	이화산업
	인스코비	일동제약	일신석재	일정실업	일진다이어
	일진전기	자화전자	전방	제이준코메틱	조광포인트
	조비	조일알미늄	주연테크	지코	진도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화학	진원생명과학	진흥기업	체시스
	케이씨씨	케이씨티시	코리아씨티	콕텍시스템	태경산업
	태경화학	태광산업	태림포장	태양금속공업	티웨이홀딩스
	페이퍼코리아	필룩스	하이트진로	한국공항	한국석유공업
	한국유리공업	한국전자홀딩스	한국주강	한국콜마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국프랜지공업	한국화장품제조	한미사이언스	한성기업	한세에스24홀딩스
	한솔피엔에스	한일철강	한진중공업	한진칼	한창
	한창제지	한화갤러리아타일월트	현대EP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시멘트
	현대제철	현대종합상사	형지엘리트	헤인	화신
	화천기계	황금에스티	효성	홍아해운	
D (26사)	KG케미칼	NI스틸	광명전기	동양철관	동원F&B
	삼양식품	성지건설	세화아이엘씨	송원산업	신대양제지
	신영와코루	신한	에이블씨엔씨	에이프로젠제약	엔케이물산
	오리온홀딩스	인지컨트롤스	조선내화	청호컴넷	키위미디어그룹
	한국내화	한국주철관공업	한국콜마	한일시멘트	한전산업
	화승인더스트리				

※ 등급조정된 회사는 굵은 기움임체로 표시함

(2)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급

등급	기업명				
S (0사)	-				
A+ (3사)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A (23사)	국민은행	DGB생명보험	KB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롯데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지주	신한카드	한국씨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은행	코리안리	하나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현대해상		

※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하나, 평가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A' 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며, 2019년에는 'B+'까지, 2022년에는 전체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 기업별 등급은 KCGS 홈페이지(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에서도 확인 가능함